

# “의료진, 집단 파업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의사 파업 즉각 중단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장마와 폭우 피해에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 도의회, 현장 복귀 촉구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국민 생명 위협하는 행동

의대정원 증원 등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증대기로서 있다”며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도 마

스크를 쓰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사회적 집단행동이다. 의료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3.5명보다 낮은 2.39명(2018)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3.12명, 전북 2.03명, 충남 1.50명, 경북 1.39명 등 OECD 기준 의사가 7만여명 이상 부족하다”고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 아닐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호성 기자

## “의료계 파업,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박승후 복지부 장관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서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의료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내부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주일 전 병원장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지혜와 조언을 구했다”며 “어려운 제안을 해준 병원장들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 제안을 숙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며 “서로 간 합의에 근접했지만 이후 의사 단체 내부 소통 등으로 잘 안 된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중증 수술이 연기되고 제 때 수술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를 의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의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홍수 원인, 수자원공 심진강 · 용담댐 방류 실패”

도의회, 원인규명 활동 보고  
“피해보상 대책 세워야”

전북도의회는 유래 없는 폭우와 함께 발생한 심진강댐 ·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심진강댐 ·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방류가 시작된 8월 8일 직전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호우특

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댐의 용도가 홍수조절이 먼저임에도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전 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댐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를 위해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또 댐관리 규정상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댐의 제원을 조정해나가야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누구도 제원 조정에 무관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

했다.

도의회는 수자원법에 따르면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에 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이정린 도의회 문건위원장은 “이번 전북지역 홍수피해의 일차적인 주범은 적절한 지휘통제의 부재로 관련 제도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인재의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액 전액 보상과 피해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교회 전체의 신망 해쳐”

문 대통령,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적반하장으로 콘소리  
여전히 방역 협력 거부  
예배, 바이러스 못 지켜  
방역은 의 · 과학 영역”

스를 동원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은 물론, 휴대전화 전역 차단 독려를 통한 동선 은폐 등으로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교회 세력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보이고 있는 정부의 방역 조치 거부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 한숨 돌리려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라도 해야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콘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신이나 또는 동선을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로인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비

문 대통령은 27일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보이고 있는 정부의 방역 조치 거부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제 한숨 돌리려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라도 해야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콘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신이나 또는 동선을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로인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비

## 일본 “이번 주말, 확산 양상 바뀔지도”

방역수칙 완전 이행 중요 강조

방역당국은 서울 광복절 집회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14 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말(28·30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가 꺾일지, 계속 될지를 가늠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17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늘어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보다 현 상태의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본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잠복기 14일째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發) 확산의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진 지 열흘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계별 이행 수칙들이 더 완벽하게 실천되고, 협력적으로 참여가

잘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언젠가 정점, 그 이후에 억제되는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대면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는 2단계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19의 상승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거리두기 단계 별 상황 또는 세분화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미 시행된 2단계 거리두기 수칙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이 확산되는 종교시설을 언급하면서 “2단계의 경우 비대면 예배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과 홍보가 이뤄졌음에도 예배가 이뤄지고, 거기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다”며 “일부 지자체 내 어떤 경우에는 종교시설 20% 이상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보고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거리두기 단계의 세분화, 조정보다 일단은 정해진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2020 장학생 선발 접수

**선발 개요**

- ◆접수기간 : 2020. 9. 2(수) ~ 9. 9(수) 18:00까지
- ◆선발대상 : 초 · 중 · 고 · 대학생 (휴학생제외)
-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272명, 271,900,000원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장학금 (1인)
계	272	1	93	89	89	
일반(성적)	65			30	35	고 70만원 대 200만원
특별(저소득)	30			15	15	고 70만원 대 200만원
다문화	10			10		고 70만원
예체기능	6	1	1	2	2	초·중·고 100만원 대 200만원
다자녀(3자녀이상)	95		30	30	35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200만원
인성(자원봉사)	6		2	2	2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100만원
복지비전카드	60		60			중 25만원

**자격 기준**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익산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문의**

- ◆접수처 :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시청 4층) 방문 접수
- ◆문 의 : 익산사랑장학재단 ☎063)859-5159 / 5152

※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www.ilsaf.or.kr)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